“액운 가고 福 오라”, 전국서 대보름 행사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 ‘풍성’
음악회, 문화공연 흥겨움 더해
복지관서도 대보름 행사 이어져
가족들과 함께 전통음식 체험도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진은 시계방향으로 내소사, 울산불교사암연합회, 정각사,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 행사 모습.

지난해 묵은 액운은 떨치고 올 한해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달집태우기, 부럼 깨기, 문화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2월 12일 경내 범종루와 일주문 일원에서 10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정월대보름 봉선사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내 범종루에서 시작된 행사는 저녁예불, 달집이운, 신중작법, 문화공연, 달집태우기 순서로 이어졌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오늘 달집태우기 행사로 마음속 밝은 보름달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교구장 호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달집에 불을 붙이자, 불길은 높이 치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비췄다. 동참 대중은 두 손 모으고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기원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이현선(49) 씨는 “2025년에 아들이 수능을 보는데, 공부한만큼 결과가 잘 나오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는 2월 15~16일 경내 일원에서 ‘달집태우기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템플스테이 동참자들은 1박 2일간 명상, 108배 정진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 달집태우기로 2024년 액운을 날리고 2025년에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길 발원했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도 2월 12일 동참 대중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나눠주며 새해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정월대보름은 새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며 “궂은 날씨에도 보름달이 떠오른 것처럼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는 한해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당산제로 새해 풍요와 발전을 염원했다.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는 2월 12일 달집태우기 행사와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정월대보름 밤을 만끽했다. 농악,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을 즐긴 대중들은 각자의 소망이 적힌 달집을 태우며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에서는 불교와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당산제가 개최됐다. 내소사 대중스님들은 경내 들당산나무에서 불교 전통의식으로 내소사와 사부대중,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당산제를 마친 뒤 마을주민들은 다함께 모여 정월대보름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한해 안녕을 빌어주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해남사 주지)는 정월대보름 맞이 ‘합동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울산시민의 번영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 등 1500여 명이 함께해 태화강에 물고기를 방생했다. 사암연합회는 이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200포를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계 복지관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과 온정을 나눴다. 도선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혜명**(이사장 태원 스님, 도선사 주지)은 2월 10일 혜명보육원 앞마당에서 ‘정월대보름 한마당 마을축제’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은 난타공연, 윷놀이 등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오늘 행사는 이웃과 정을 나누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협력과 조화의 힘야말로 미래를 밝힐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화성 정조효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스님)은 2월 11일 관내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고무신 던지기, 땅콩 부럼 주머니 만들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기며 옛 추억을 불러 일으켰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며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니 활기찬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2월 12일 진행된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통 놀이, 바자회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한 곳도 있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광제사 주지)는 2월 9일 ‘을사년 정월대보름 복쌈잔치’를 열었다. 100여 명의 가족은 오곡밥과 제철 나물이 담긴 전통음식 ‘복쌈’을 만들고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놀이를 통해 뜻깊은 명절을 보냈다.

조계총림 송광사, 동안거 해제법회 봉행

현묵 스님 “지혜 등불 밝히길”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2월 12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해제법회에는 동안거를 성만한 수좌스님들과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해 3개월 간의 수행을 회향했다.

이날 현묵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해제를 마치고 만행에 나서는 스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일심으로 잘 챙겨서 다시 또 결제일이 되면 처소에서 열심히 정진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 “해제 걸음마다 기도로다”

2월 11일 경내 대웅전 · 앞마당서



겨울 석 달 동안 수행정진 해온 눈푸른 납자들이 동안거 해제를 맞아 계를 정돈하고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2월 11일 경내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동안거 2차 포살 및 해제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수덕사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정범 스님, 개심사 혜산 스님, 정진 납자 161명 등이 자리했다.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는 “해제만행 걸음걸음마다 천일기도요, 만일기도로다”고 법어를 내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장성 백양사, 을사년 동안거 해제법회

“수행도량으로 거듭”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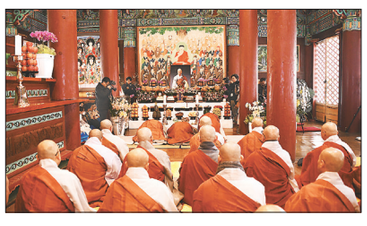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2월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세 달간의 겨울 수행을 회향하는 ‘을사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은 “이제 자기가 의지하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 점검을 하고, 선배나 도반에게 물어서 법의 탁마(琢磨)를 해야 공부의 진척이 된다”는 해제 법문을 전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올해는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함께 수행정진에 임해줘 감사하다”며 “무탈하게 동안거 해제를 맞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좌스님들에 감사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범일당 보성 대종사 6주기 추모법회

2월 11일 경내 대웅보전서
추모다례, 부도탑 참배 등



청빈한 삶을 통해 목우행자를 지도했던 전 송광사 방장 범일당 보성 대종사(1928~2019)의 추모법회가 봉행됐다.〈사진〉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2월 1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보성 대종사 6주기 추모다례재와 부도탑 참배를 진행했다.

추모법회에는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들과 본·말사 주지, 신도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문도대표 영선 스님은 “스님은 ‘늘 수행자는 항상 청정해야 한다’고 말씀하며 검소하게 살았다”면서 대종사의 청빈한 삶을 회상하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로서 신심을 견고히 하고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동안거가 해제 전날 대종사의 추모법회에 참석해준 여러분에 감사하다”며 “스님이 특별한 복전을 짓고 떠나 많은 분이 모였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성당 명선 대종사 2주기 추모제 봉행

2월 9일, 지리산 대화엄사서
“수행정진 가풍 이어갈 것”



호남지역 불교 포교에 진력했던 전 조계종 원로의원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2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2월 9일 경내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명선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추모제에는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문도 대표 진만 스님과 문도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 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에 도광·도천 대종사의 추모재에 명선 대종사의 행장기를 올려드렸는데, 그 행장기에는 대종사의 큰 원력과 증명, 노력이 담겨 있다”며 “사부대중은 인욕과 자비, 수행정진의 가풍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도스님을 대표한 진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처작주의 삶을 강조하셨던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 본다”고 회고하며 “사부대중의 청안과 건강을 축원한다”고 참석한 대중들에 감사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산 정법사 정초기도 회향법회

네팔 석가족 사원서 사리 이운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2월 6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을사년 정초기도 회향 및 진신사리 이운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월 31일~2월 6일까지 7일간 이어진 정초기도에는 1000여 불자가 동참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비로선원 화엄삼존불 내 복장물로 봉안될 네팔 석가족 사원에서 이운한 부처님 사리가 공개됐다.

이 사리는 주지 광우 스님이 네팔의 석가족 겐가지 삭카야 스님에게 기증받은 사리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미륵암, 정초 용왕대재·방생법회



경남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 스님)은 2월 9일 을사년 정초를 맞아 남해 바다 일원에서 용왕대재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해 신심을 나누며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서는 바다와 강을 관장하는 용왕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피를 기원하는 용왕대재 의식이 거행됐다. 이어 방생법회에서 참석자들은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행사를 통해 미륵암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 및 재난과 질병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승가대 졸업식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2월 10일 경내 정혜사에서 제23회 율학승가대학원과 제36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2명(일벽·혜견 스님)과 승가대학 졸업생 5명(평수·운해·해월·혜경·도하 스님)이 불교의 수행과 포교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졸업식에는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 율원장 대경 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희망찬 새해” 기원



천안 각원사 사부대중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2월 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며 올해 건강과 무탈을 발원했다.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오늘 서로 절하면서 느꼈던 진실된 마음을 잘 유지해서 지남(指南)으로 삼길 바란다”며 “2025년에도 복을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희망찬 새해를 만들자”고 덕담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불교대 ‘물리학과 깨달음’ 주제 특강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2월 9일 관내 4층 대법당에서 황근창 원광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물리학과 깨달음’을 주제로 2025년 2차 동계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황근창 교수는 “생각의 출몰을 그대로 지켜봐라. 올라오는 생각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수련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체 모든 것은 연기(조건)의 소산이므로 영원한 실체가 없어서 집착해야 할 나도 대상도 없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이게 열반이다”고 강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성주사 조사전 낙성법회 봉행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2월 12일 경내 조사전 앞에서 조사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낙성법회를 가진 조사전은 성주사의 개산조(開山祖)인 무염 국사 진영을 비롯해 의정 대선사, 찬훈 대선사, 대총 대선사 등 역대 조사스님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원력을 펼쳐오신 선사들의 뜻을 되새기며, 성주사가 창원시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